

HA CHA YOUN
Home(s)

하차연
홈(즈)



Von 1960 bis 2080 1960 (From1960 to 2080), 1989
Performance-Installation, writing text on the ground
Nîmes, France



Je me brûle (I burn me), 1987
Installation-Performance with plastic bottles, fire and water, metal, cement
Nîmes, France



Reis pflanzen (Planting rice), 1988
Installation-Performance, newspaper objects, collaged posters, charcoal drawings, various objects
Braunschweig, Germany



Bleibt wie (ein) Baum (Stay as (a) tree), 1989
Performance, wood, adhesive tape
Nîmes, France



하차연 작가 소개 및 이력



HA CHA YOUN was born in 1960 in Masan (currently Changwon), Gyeongsang nam-do, Korea. Since moving to France in 1983, she has lived and worked in France and Germany and is based in Western Europe. She identifies herself as an emigrant and an immigrant.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installation, performance, video, objects, and photography, she attempts to localize and root herself in a new place.

She uses discarded plastic water bottles and plastic bags to raise awareness of the over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onsumer goods and to continually question global imbalances. Since the 2000s, the Sweet Home series of archival films and performances have dealt with social inequalities such as homelessness, economic precariousness and minorities from different angles. For 40 years, her work has called for “living together”.

하차연은 1960년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태어났다. 1983년 프랑스로 이주한 이래 프랑스와 독일에 거주하며 서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스스로 이민자Emigrant 및 이방인Immigrant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한다. 설치, 퍼포먼스, 영상, 오브제, 사진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새로운 곳에서의 자리 잡기, 뿌리 내리기Localisation를 시도한다.

버려진 플라스틱 물병 및 비닐봉지를 사용하여 소비재의 과잉생산 및 소비를 제고하고 세계적 불균형에 지속적인 질문을 던진다. 2000년대 이후, 기록 영상 및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스위트 홈Sweet Home 연작을 통하여 노숙인, 경제적 열약자, 소수자 등의 사회적 불평등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한다. 지난 40여년간, 작품을 통하여 “같이 살기”를 요구한다.

학력

1989-1994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국립조형예술대학 순수미술 마이스터슐러 및 예술학 석사 Meisterschülerin of Freien Kunst bei professor Christiane Möbus and Master of Kunstwissenschaft at the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 Braunschweig, Germany

1986-1989 프랑스 님므 미술대학 고등 조형예술 국가학위 Diplôme National Supérieur d'Expression Plastique at the l'Ecole Supérieure des Beaux Arts de Nîmes, France

1984-1986 프랑스 푸아티에 미술대학 수학 Studied at École régionale des Beaux-arts de Poitiers, Poitiers, France

전시경력

(주요) 개인전 / 총 24회

2021 《집으로 Return Home》, 대안공간 루프Alternative Space LOOP, 서울Seoul, 한국Korea

2019 《집(들) Home(s)》 프로젝트project, 레세르아트센터Lescer Art Center, 잘레지고르네Zalesie Gorne; 주폴란드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Center, 바르샤바Warsaw, 폴란드Poland

2013 《둥지틀기: 쪽방 프로젝트 Nestling: Jjockbang project》, 코너아트스페이스Corner Art Space, 서울Seoul, 한국Korea

2011 《스위트 홈 Sweet Home》, 그라프샤프트-벤트하임 예술협회Kunstverein Grafschaft-Bentheim, 노이엔하우스Neuenhaus, 독일Germany

2010 《비디오 비지오넨 Video visionen》, 에디스-루스-하우스 미디어아트 Edith-Russ-Haus für Medienkunst, 올덴부르그Oldenburg, 독일 Germany

(주요) 단체전 / 총 37회

2020 《오픈 필드 Champs libres》, 마이프 소셜클럽, 파리 프랑스

2016 《O상O화국 Republic of 0-Sang》, 제 11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2014 《모바일홈 프로젝트 Mobile Home Project》, 송원아트센터, 서울, 한국

2012 -2013 《그 사이의 여성: 아시아 여성 예술가 1984-2012 Women in-Between: Asian Women Artists 1984-2012》,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오키나와현립미술관, 도치기현립미술관, 미에현립미술관, 일본

2011 《땅에서의 살기 Habiter la terre》, 제 5회 멜르 현대아트 비엔날레, 멜르, 프랑스

2008 《리뷰하다 Re-View》,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2008 《세계 속의 한국 현대미술-파리전 Contemporary Korean Artists in Paris》,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2008 《한국에서의 일상 Daily life in Korea》, 국립현대미술관 주최, 퀸즈갤러리, 방콕, 태국

2008 《언니가 돌아왔다 Eunni is back》, 경기도 미술관, 안산, 한국

2007 《물, 공기, 흙: 정원사의 지혜 Eau, air, terre: la sagesse du jardinier》, 제 3회 멜르 현대아트 비엔날레, 멜르, 프랑스

주요 작품 소장처

2021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2021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2014 경남도립미술관, 한국

2013 도치기현립미술관, 일본

1999, 1996 하노버시 문화부, 독일

1997, 1995 니더작센주 과학문화부, 독일

레지던시 및 수상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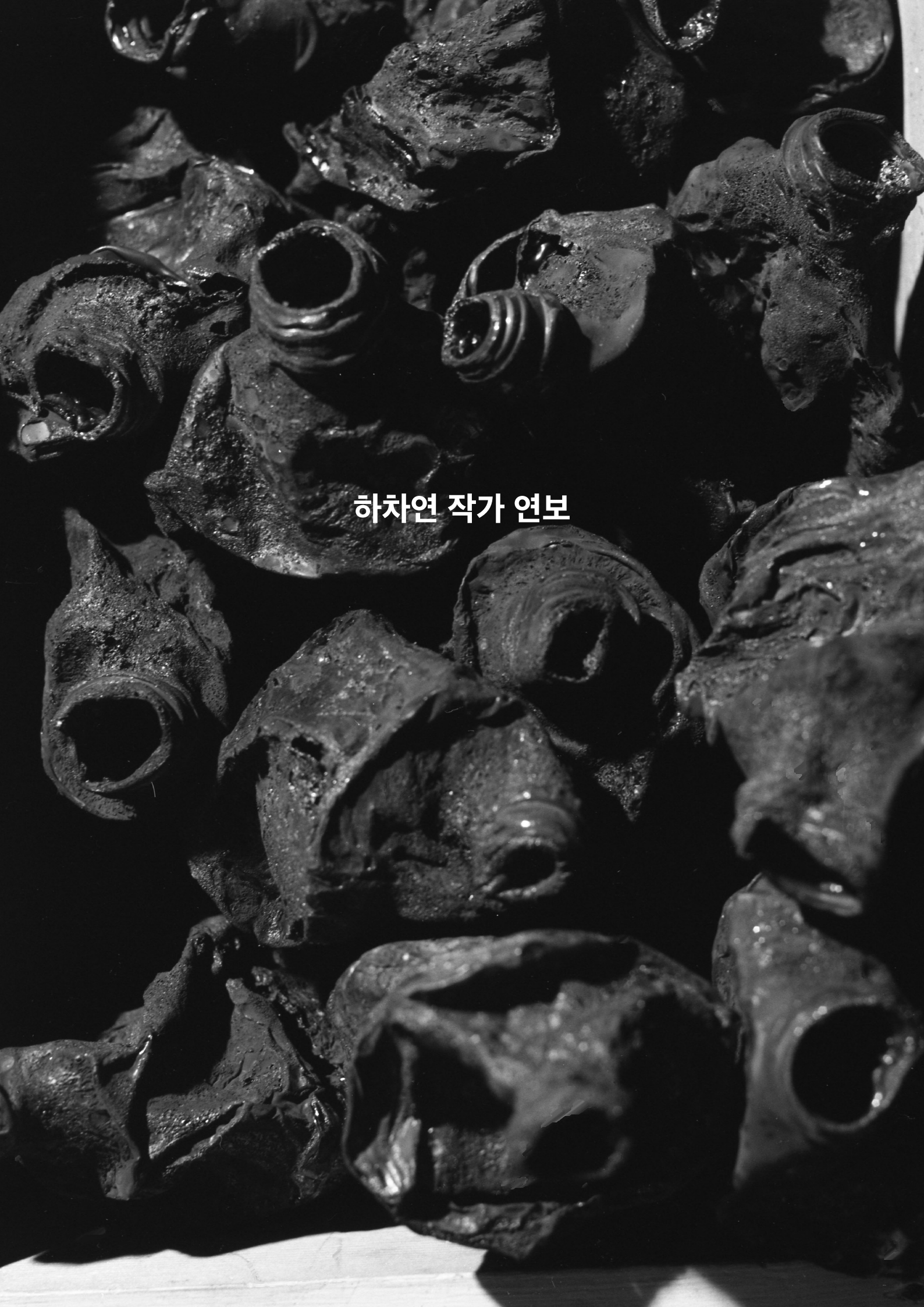
2001 독일-프랑스 파리국제예술공동체 시떼레지던시

1999 독일 니더작센주 예술후원상

1998 독일 하노버시 슈파카세문화재단 레지던시

1996 독일 바켄호프 재단 레지던시

1992 독일 본 쿤스트폰드 예술기금 e.V. 선정)



하차연 작가 연보

1960년 3월

1960년 3월 12일 5녀 1남 중 3녀로 현재의 창원시인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태어나다. 출생 후 4일 만에 발생한 3·15 마산 의거에 아버지가 참여하고 청년 세입자가 사망했다. 프랑스 님므Nîmes에서 제작한 회화 〈11그루의 나무 Onze arbres〉(1986)와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Braunschweig 에서 제작한 벽화 〈11그루의 나무 Onze arbres〉(1988)는 3·15 마산 의거 희생자에게 헌정하는 작업이다. 하차연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잦은 병치레와 함께 보냈다.



Onze arbres (Eleven trees), 1986
Painting, oil on collaged newspaper
150×100cm, 150×150cm, 150×100cm
Nîmes, France

1978년 2월

마산의 합포국민학교, 상남국민학교, 제일여자중학교, 제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다. 진로 방향의 부재와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유로 대학 진학을 보류하고 마산수출자유지역 동양통신, 한국감정원 마산지점 등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다.

1980년 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다. 직장 생활과 미술대학 입시 준비를 병행하며 과로로 2개월 이상 병가를 내다. 아버지의 미술대학 진학 반대로 경제학과 진학을 전제로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다.

1983년 9월

1983년 9월 24일 프랑스 푸아티에Poitiers시에 도착하다. 푸아티에시 대학 문학과에서 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1년 교과 과정 Université de Poitiers, Faculté des Lettres et des Langues, Section de Français pour étudiants étrangers.을 이수하다. 이와 함께 푸아티에 미술대학 École régionale des beaux-arts de Poitiers(현 École européenne supérieure de l'image), Poitiers의 일반인을 위한 조각 과정 Cours pour adultes - Sculpture et Volume을 이수하다.

1984년 9월

푸아티에 미술대학에 입학하다.

1984년 9월-1985 6월

1학년으로 회화, 데생, 조각, 사진, 미술사 등 미술 전반에 대한 기초 과정을 배우다.

1985년 9월-1986년 6월

2학년, 본격적으로 창작 작업을 시작하다. 천과 비닐 위에 에나멜 페인트로 숲과 나무를 그린 연작을 제작했다. 〈손 잘린 나무들 Les arbres aux doits coupés〉(1985),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숲 La forêt après les choses extravagantes〉(1985) 등은 프랑스에서 본 가지치기 한 나무들의 풍경을 모티브로 한다. 주먹 쥔 팔뚝을 연상케 하는 나무 풍경 연작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연상하며 제작했다. 작업에서 붉은 에나멜 페인트가 천 위에 흘러내리는 듯한 질감 표현을, 당시 유럽 미술계에서 유행하던 '성적 표현', 혹은 '에이즈가 퍼지는 상황에서 남근의 표현'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하차연의 작업은 작가의 의도와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해되곤 했다. '현재 지내고 있는 서유럽 이곳'과 '고향, 내가 지냈던 한국 저곳'을 병첩하며, 다국적 사람들이 제 작업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물병을 태우는 작업을 시작하다. 물병들은 타고 찌들어 처참한 소형의 신체 모형이 되었다. 〈가족사진 Photos de la famille〉(1986)은 유학 출국길에 찍은 가족사진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광고 포스터에 목탄으로 그린 흑백 가족사진, 천 위에 에나멜로 그린 노란 피부의 가족사진, 두 작품 사이에 작가가 서 있다. 한복을 차려입은 가족과 일상복을 차려입은 가족은 고전과 현대에서 서로를 밀고 당기며 우리의 것은 지키고, 잃어버린 것은 찾아내고, 새로운 것은 포용하는 공존의 세상을 대변한다. 옷을 벗으면 몸뚱이만 남게 되며 이는 문화, 국적, 가식, 포장을 벗어낸 상태다. 피부색을 노란색으로 강조한 이유는 의식적으로 이국인임을 자처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Photo de la famille, 1986
Charcoal on cardboard
243×232cm

Lacquer and oil on canvas
226×207cm

1986년 7월-8월

단체전 《젊은 장인들 Les jeunes maîtres》(1986, 르꽁포르모데른Le confort moderne, 푸아티에)에 참여하다.

도불 후 3년 만에 고향인 마산에 돌아와 개인전 《하차연 첫 번째 그림전 HA CHA YOUN Première Exposition en Peinture》(1986, 이조화랑Galerie Yi-Jo, 마산)을 개최하다. 푸아티에에서 제작한 숲과 나무 연작, 도시의 새로운 직업, 그리고 마산에서 제작한 〈시멘트 정원 Jardin du Ciment〉(1986) 등이 전시됐지만 다수가 현재 훼손되거나 분실된 상태이다.



Nouvelle Profession en Ville (New profession in town), 1986
Painting, enamel on canvas
105x125cm, 155x125cm, 90x125cm
Poitiers, France

1986년 9월

프랑스 님므Nîmes시 님므 미술대학École de Nîmes(현 É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Nîmes), 에 3학년으로 편입하다. 클로드 비알라Claude Viallat, 토니 그랜드Tony Grand, 다니엘 드주즈Daniel Dezeuze, 빈센트 비울레스Vincent Bioulès 등 주로 1970년대 프랑스의 미술 사조인 쉬포르 쉬르파스Support-Surface 작가로 구성된 교수진에게서 수학하다.

〈11그루의 나무 Onze arbres〉(1986) 포스터 위의 색소, 〈나무들 Les arbres〉(1987)의 줄로 연결된 나무 둥지처럼 작품에 '함께하기', '커뮤니티'의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다. 개인 중심적인 서양 사회에서의 생활은 자신의 문화를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물병들을 저녁에 수거하고, 낮에는 붙어 있는 상표를 뜯어내 불로 태우고 물로 굳혔다. 작은 물병들은 타서 일그러진 형태로 변했다.

한국 소식을 가끔 일간지 르 몽드Le Monde를 통해 접하다. 소식이나 단어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암호 풀이하듯 소화했다. 한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대인이 되는 것을 항상 생활의 중심에 두었다.

La Forêt (The forest), 1987
Painting, oil on collaged newspaper
50×70cm
Nîmes, France



1987년 5월

〈나를 불태우다 Je me brûle〉(1987)를 제작하다. 까맣게 탄 나무에 물을 끼얹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기록했다. 일 년간 태운 물병들을 손이 잘린 나무 둥지로 변화시켜 실내에 설치했다. 홀로 갇혀 까맣게 탄 나무 한 그루는 하차연의 초상이다. 퍼포먼스가 끝날 무렵 창문이 열리고 아래로 처진 나무의 가지가 실내와 실외를 연결한다. 뻗친 가지들은 건물 바깥의 다른 창문을 향한다. 가지를 뻗어 이웃의 창문을 두드린 것은 외부와의 소통을 갈구한 것이다.

Untitled, 1986
Installation
Burnt plastic bottles
Nîmes, France



1987년 8월

프랑스-독일 청년 사무국 교환학생 장학금 L'Office franco-allemand pour la Jeunesse을 받아 님므 미술대학의 협정대학인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국립조형예술대학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에서 6개월간 교환학생 과정을 거치다. 총 9개월간의 독일 체류를 마치고 다시 님므 미술대학으로 돌아왔다.

프랑스의 학년식 교육 과정과는 달리 독일은 도제식 교육 과정으로 특정 교수의 반에서 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작업했다. 하차연은 크리스티안 뫼버스Christiane Möbus 교수의 반에서 공부했다.

1988년 1월

〈푸아티에, 님므, 브라운슈바이크, 파리, 베를린, 런던에서 366일… 366 Days in Poitiers, Nîmes, Braunschweig, Paris, Berlin, London…〉(1989-1991)은 1988년 1월 1일부터 하루에 한 장씩 변해가는 작업실 설치 과정을 담은 폴라로이드 기록물이다. 목탄, 석고 가루, 신문지, 광고 포스터 등을 사용해 벽과 바닥에 드로잉하고, 오브제를 나무 둥지 형태로 쌓아 올리고, 신문지를 꼬아 제기 형태로 만들었다.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대형 유리 패널을 이용해 366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양면으로 설치했다.

브라운슈바이크 국립조형예술대학에서 신문지로 꼬아 만든 오브제 설치 퍼포먼스 〈모심기 Reis pflanzen〉(1987-1988)를 진행하다. 퍼포먼스는 4분 41초의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프랑스 남부와 독일 북부의 대조되는 문화 차이는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고 적응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과 유럽, 나아가 한국, 프랑스, 독일의 삼중 문화 속에서 자신을 재정립했다. 프랑스에서 시도한 물병 작업은 재료의 부족으로 지속할 수 없었다. 빈 플라스틱 생수병은 생산국으로 반환했다.

1988년 8월

님므로 돌아가 님므 미술대학에 5학년으로 재입학하다. 폴라로이드 작업을 계속해서 제작했다. 대형 광고 포스터, 플라스틱 물병, 돌 등을 활용해 나무 둥지처럼 쌓아 올리는 현장 작업을 진행했다.

1989년 5월

님므 미술대학을 졸업하다. 독일에서 1년 정도 공부하기로 했다. 프랑스 남부와 독일 북부를 오가는 생활을 고찰하며 한곳에 머물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나무처럼 머물기 Bleibt wie (ein) Baum〉(1989)를 제작했다. 나무 둥지의 잘린 면에 붉은 페인트칠을 하고 둥지 중심에서 시작해 내려오는 붉은 줄을 발가락에 묶은 채 오전 내내 한 곳에 서 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960년부터 2080년까지 Von 1960 bis 2080〉(1989)는 쪼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목탄이나 분필로 바닥에 동그랗게 둘러 가며 숫자를 쓰는 퍼포먼스이다. 손이 닿는 곳까지 1960년부터 숫자를 하나씩 더해가며 쓰는 작업으로, 물질적 공간과 물리적 시간을 동시에 작품에 녹여냈다.

〈쌀과 꽃 Reis & Blumen〉(1989)은 제기 모양의 오브제이다. 당시 쌀은 독일에서는 거

의 먹지 않았으나, 프랑스 남부에서는 베트남 이주민에 의해 몇백 년 전부터 생산되어 익숙해진 작물이다. 독일에서의 쌀이 프랑스에서 붉은 색과 녹색의 꽃으로 변화하여 쌀과 꽃, 두 가지가 같이 설치 되었다.

님므 미술대학에서 고등 조형예술 국가학위 Diplôme National Supérieur d'Expression Plastique à l'Ecole Supérieure des Beaux Arts de Nîmes를 취득하다.
개인전《그리고 또 항상 Encore et toujours》(1989, 님므 미술대학École de Nîmes, 님므)을 개최하다.
단체전《오프 오프 OFF OFF》(1989, 아를 국제사진 페스티벌Rencontre internationale de la photographie d'Arles, 아를에 참여하다.

Reis pflanzen (Planting rice), 1988
Installation-Performance, newspaper objects, collaged posters, charcoal drawings, various objects
Braunschweig, Germany



1989년 8월

브라운슈바이크 국립조형예술대학 뫼버스 교수의 반에서 학업을 이어가다. 예상했던 기간인 1년 동안 많은 것을 습득하기에는 부족했다. 이 기간에 회화 작업은 하지 않았으며, 설치, 사진, 영상, 미술이론 등 광범위하게 기술과 지식의 지평을 넓혀갔다.

11월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텔레비전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았다.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간극, 사회 분배구조 등의 변화를 살폈다.

1990년

개인전《하차연 HA CHA YOUN》(1990, 갤러리 쁠라까르Galerie du Placard, 님므)을 개최하다.
단체전《클라스 Klasse》(1990, 첼레 미술관Kunstverein Celle, 첼레Celle, 독일Germany)에 참여하다.
단체전《4인의 작가전 Im Carré》(1990, 괴팅겐 미술관 프로젝트Kunstverein Göttingen, 괴팅겐Göttingen, 독일Germany)에 참여하다.
단체전《라움 클리마 Raum Klima》(1990, 하노버 미술관Kunstverein Hannover, 하노버Hanover, 독일Germany)에 참여하다.

1991년

〈아메리카/유럽, 예술 파라다이스 Amerika/Europa, Kunst Paradies〉(1991-1992)는 알파벳, 접착테이프, 천, 지구본을 사용한 작업이다. 유럽에서 유학하며 세계인, 혹은 이민자로 자리 잡는 과정을 그렸다. 전 세계의 이민자들이 고민해 보았을 법한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등의 문제를 언어적 이미지로 해석했다.

〈1960년부터 2080년까지…주사위 1991 Von 1960 bis 2080… Würfel 1991〉(1991)는 175x175x175cm 크기의 설치물로 신체 크기의 화물용 상자를 연상케 한다. 위에서 본 설치물의 흰 내벽에는 텍스트가 적혀 있고, 그 바닥에는 대형 종이배가 접혀 있으며 퍼포먼스 〈1960년부터 2080년까지〉의 결과물인 연도들이 적혀 있다. 이동을 위한 상자는 작가만의 일시적인 공간이다. 하차연의 시간 및 장소, 일시적 정주에 관한 개념이 압축돼 있다.

브라운슈바이크 국립조형예술대학 순수미술 마이스터슐러 과정Freien Kunst Meisterschülerin bei professor Christiane Möbus at the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 Braunschweig, Germany을 졸업하다.



Amerika/Europa (America/Europe), 1991
Assemblage, fabric, self-adhesive letter, wooden stick
ca.12×50×10cm
Braunschweig, Germany

1992년

단체전 《하노버 상황 Szene Hannover》(1992, 빌라미니모 미술상전Prix Villa Minimo, 쿠부스Kubus, 하노버)에 참여하다.

1992년-1993년

독일 본 쿤스트폰드 예술기금 e.V. Kunstfonds e.V. from Stiftung Kunstfonds, Bonn, Germany에 선정되다.

1993년

단체전《주어, 술어, 목적어 Subjekt, Prädikat, Objekt》(1993, 하우스암발트제Haus am Waldsee, 베를린Berlin, 독일Germany)에 참여하다.

1993년 - 1995년

1993년부터 2년에 걸쳐 총 3회의 개인전《이동 AUSZUG》을 개최하다. 단어 'AUSZUG'는 '이동', 혹은 '발췌'라는 뜻으로, 그 뜻처럼 기존의 전시 공간이 아니라 본인이나 타인의 작업실을 전시 공간으로 사용했다. 1983년 이후 유럽을 이동하며 지낸 경험과, 1994년 하노버로 이사한 경험을 담아낸 자전적인 내용의 전시이다.

《이동 AUSZUG》의 첫 번째 개인전《솔로, 시리즈의 끝 Solo, la fin de série》(1993, 브라운슈바이크 국립조형예술대학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 브라운슈바이크)을 개최하다. 〈솔로, 시리즈의 끝 Solo, la fin de série〉(1993)은 2층 침대, 미닫이문, 계단, 사다리 등 좌식 주거 환경을 연상케 하는 공간 설치 작품이다.

《이동 AUSZUG》의 두 번째 개인전《단어들 Les mots & die Wörter》(1994, 하노버의 작업실Hannover Atelier, 하노버)을 개최하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를 이동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옮겨왔다. 작업실을 작업 생산을 하는 곳 뿐만 아니라 대화의 장소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이동 AUSZUG》의 세 번째 개인전《시간 히치하이커 Die Zeittramperin》(1995, 하노버의 작업실Hannover Atelier, 하노버)를 개최하다. 장소를 이동하는 '히치하이커 Tramperin' 대신 시간을 이동하는 '시간 히치하이커Die Zeittramperin'라는 독자적인 단어를 고안해 사용했다. 폐공장을 개조한 작업실 안에 아스팔트를 깔고 대형 광고 패널을 설치하고, 건물 외부에 있는 대형 상업 광고 패널을 이용해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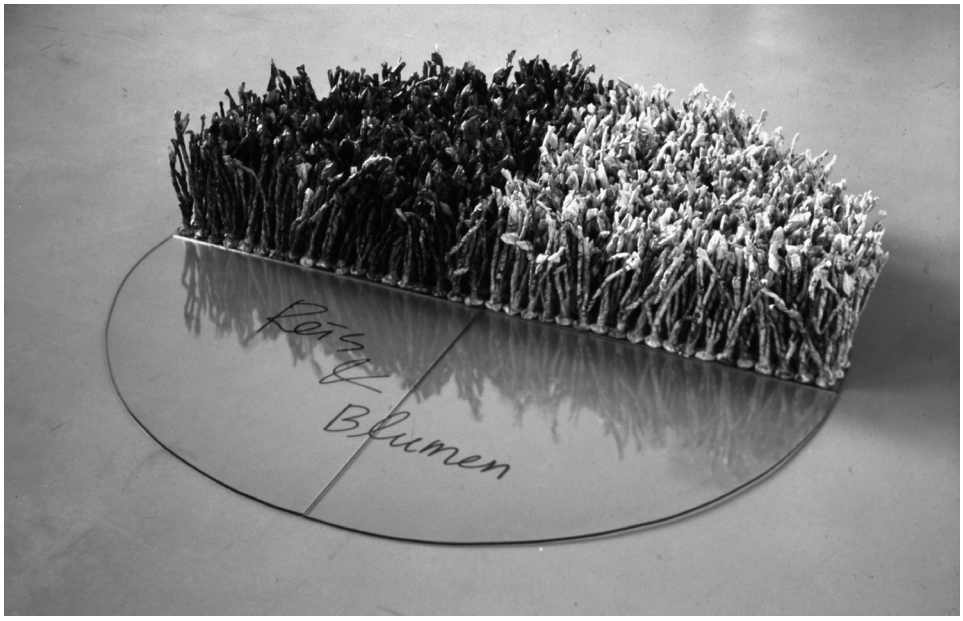
1994년 6월

브라운슈바이크 국립조형예술대학 예술학 석사 과정 Kunstwissenschaft Meister von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을 졸업하다.
석사 졸업 후 하노버로 작업실을 이전해 독일 북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다.

1995년

독일 니더작센주 과학문화부Niedersächsisches Ministerium für Wissenschaft und Kultur, Niedersachsen, Germany에 〈쌀과 꽃 Reis & Blumen〉(1990)이 소장되다.
개인전《중간 연주 Zwischenspiel》(1995, 뵈브링겐 미술관 스튜즈 16 갤러리Böblinger Kunstverein Galerie Schleuse 16, 뵈브링겐Böblingen, 독일Germany)를 개최하다.
도록『이동 AUSZUG』3부작을 발간하다. 미하엘 에얼호프Michael Erlhoff의 비평「현지화로서의 거주 Aufenthalt als Verortung」, 라이마 스탕그Raimar Stange의 비평「말과 침묵의 한가운데에서 In der Mitte von Reden und Schweigen」가 실렸다.
단체전《봄으로 성장한 Frühlingserwachen》(1995, 하노버 미술관Kunstverein Hannover, 하노버)에 참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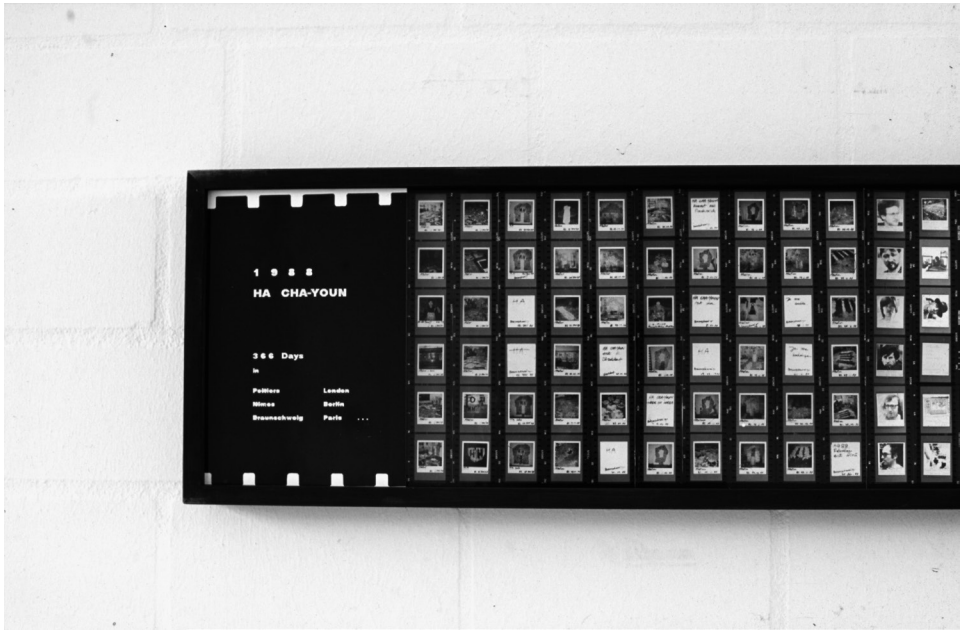
Reis und Blumen (Rice and Flowers), 1990
Installation, newspaper, coin, color, glass, writing text
ø100cm
Braunschweig, Germany



1996년

하노버시 문화부 Fachbereich Kultur von Landeshauptstadt Hannover, Germany에 〈1988년 푸아티에, 님므, 브라운슈바이크, 런던, 베를린, 파리에서 366일... 1988, 366 days in Poitiers, Nîmes, Brauschweig, London, Berlin, Paris....〉(1988)이 소장되다.
개인전 《스튜디올로 Studiolo》(1996, 브라운슈바이크 미술관 스튜디오 갤러리2, 브라운슈바이크)를 개최하다.
도록 『스튜디올로Studiolo』를 발간하다.
라인홀드 하펠 Reinhold Rappel이 비평「스튜디올로 Studiolo」를 발간하다. 단체전 《재회 Wiedersehen》(1996, 하노버 미술관Kunstverein Hannover, 하노버)에 참여하다.

366 days in Poitiers, Nîmes, Brauschweig, London, Berlin, Paris..., 1989
Photo, wooden frame
247.5×23.5cm
Braunschweig, Germany



1996년-1997년

독일 바켄호프 재단 레지던시 Barkenhoff-stiftung, Worpswede, Germany에서 활동하다.

1997년

니더작센주 과학문화부에 〈엘리자베스와 프롤(5) Elisabeth & fRol(5)〉(1996)이 소장되다.

199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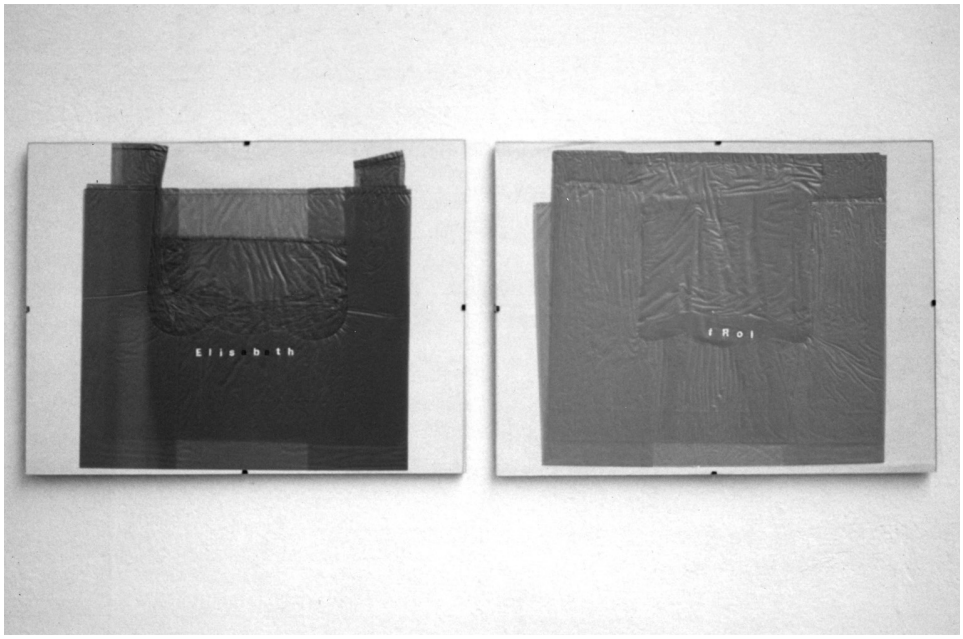
니더작센주 슈파카세문화재단 레지던시 Niedersächsische Sparkassenstiftung, Niedersachsen, Germany에서 활동하다.

개인전 《색으로 En couleur-Farbprobe》 (1998, 쿤스틀러하우스 마이네센Künstlerhaus Meinersen, 기프호른Gifhorn, 독일Germany)를 개최하다.

도록『색으로En couleur - Farbprobe』를 발간하다.

하인즈 티엘 Heinz Thiel이 비평「색으로En couleur - Farbprobe」를 발간하다.

독일 쿤스틀러하우스 마이네센Künstlerhaus Meinersen, Meinersen, Germany에 〈엘리자베스와 프롤(2) Elisabeth & fRol(2)〉(1996)이 소장되다.



Elisabeth & fRol(5), 1996
Plastic bags, glass frames
30×212cm in 2 parts
Hanover, Germany

1999년

개인전 《새해 염원 Voeu de nouvel an》(1999, 아르뗌 갤러리Galerie Artem, 껨빼르Quimper, 프랑스France)을 개최하다. 10년만의 프랑스에서의 전시이다. 갤러리 건물의 1층은 신부복을 파는 가게와 갤러리로 나누어져 있었다. 갤러리 벽면에 작가의 것이 포함된, 파트너를 구하는 독일어 광고(Die Zeit)를 확대해 연필 데생으로 가득 채웠다. 이를 통해 프랑스인 관람객들이 일시적으로 이방인이 되는 체험을 유도했다.

단체전 《하노버 1999 Hannover 1999》(1999, 아이스파브릭 대안공간Eisfabrik Foro Artistico, 하노버)에 참여하다.

독일 람스프링게 9월재단 레지던시Studio Grant Lamspringer September der Klostermühle Lamspringe, Lamspringe, Germany에서 활동하다.
니더작센주 청년예술가상Niedersächsische Bildende Kunst Förderpreis에 입상하다.
하노버시 문화부에 〈색상 샘플/파란색-분홍색 Farbprobe/blau-rosa〉(1996)이 소장되다.

2001년

독일 정부 지원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Programm de résidence pour les artistes allemands으로 프랑스 파리 국제 예술 공동체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à Paris, France에서 활동하다.
개인전 《색으로 En couleur-Farbprobe》(2001, 파리국제예술공동체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파리)를 개최하다.
단체전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추억 Réminiscences au pays du matin calme》(2001, 주불 한국대사관 Ambassade de Corée, 파리)에 참여하다.
단체전 《동시 Simultanées》(2001, 갤러리 올리비에우그Galerie Olivier Houg, 리옹Lyon, 프랑스France)에 참여하다.
단체전 《롤렉스-노드 Rolex-nord》(2001, 아뜰리에하우스Atelierhaus, 하노버)에 참여하다.

2002년

7월 프랑스인 시릴 게르날렉Cyrille Guernalec과 결혼해 파리에서 활동하다.
단체전 《젠느크레아시용 공모전 Jeune Création 2002》(2002, 그랑 할 드 라 빌레트la Grande Halle de la Villette, 파리)에 참여하다.

2003년

개인전 《색으로 En couleur-Farbprobe》(2003, 프랑스 그르노블 예술협회Grenoble International, 그르노블Grenoble, 프랑스France)를 개최하다.
단체전 《묵과 Connivences》(2003, 레제르브와르les Réservoirs, 리메이Limay, 프랑스France)에 참여하다.
단체전 《김오안, 하차연 Oan Kim, Ha Cha Youn》(2003, 갤러리 에다스세비라Galerie Hedaes Sevira, 파리)에 참여하다.

2005년

남편의 사망 이후 파리 11구에 거주하며 작업하다. 주거지를 중심으로 노숙자와 불법 체류자를 관찰한 사진, 퍼포먼스, 영상 시리즈 〈스위트 홈 Sweet Home〉(2004-2009) 연작을 만들다.
단체전 《이시 비엔날레전 2005 Biennale d'Issy 2005》(2005, 카드 박물관Musée français de la carte à jouer, 이시레물리노Issy-Les-Moulineaux, 프랑스France)에 참여하다.

2006년

개인전 《파리 산책 Balade dans Paris》(2006, 에스빠스 이까르Espace Icare, 이시레물리노)을 개최하다.

2007년

단체전 《물, 공기, 흙: 정원사의 지혜 Eau, air, terre: la sagesse du jardinier》(2007, 제3회 멜르현대아트비엔날레3ème Biennale internationale d'art contemporain de Melle, 멜르Melle, 프랑스France)에 참여하다.

멜르시Ville de Melle, France에 〈분리(수거) Tri〉(2007)과 〈보관 Consigne〉(2005-2006)이 소장되다.



Tri (Sorting), 2007
Installation in situ, trash posts, plastic bags
Biennale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Melle, France

2008년

다큐멘터리 〈야영지의 기록 Journal d'un campement〉(2008)을 제작하다.

푸아티에시 창작레지던시 Résidence de création des Écoles d'art et de la ville de Poitiers, Poitiers, France에서 활동하다.

개인전 《보관 Consigne》(2008, 갤러리 넥포스Galerie NegPos, 제4회 이미지와 도시 페스티벌dans le cadre de 4th édition Ville et image, 님므)을 개최하다.

단체전 《리뷰하다 Re-View》(2008, 경남도립미술관Gyeongnam Art Museum, 창원)에 참여하다.

단체전 《세계 속의 한국 현대미술-파리전 Contemporary Korean Artists in Paris》(2008,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Seoul Art Center Hangaram Gallery, 서울)에 참여하다.

단체전 《한국에서의 일상 Daily life in Korea》(2008, 퀸즈 갤러리Queen's Gallery, 방콕Bangkok, 태국Thailand)에 참여하다. 한국-태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한 전시로, 태국에서 소개된 한국현대미술 전시이다.

단체전 《언니가 돌아왔다 Eunni is back》(2008, 경기도미술관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안산)에 참여하다.

Installation view, 2008
Contemporary Korean Artists in Paris
Seoul Art Center, Hangaram Museum
Seoul, Korea



2009년

푸아티에시에서 기획한 개인전 《프로젝트 스위트홈 4 Projet Sweet Home 4》(2009, 푸아티에 미술대학 갤러리Galerie des Ecoles d'art de Poitiers, 갤러리 루이즈미셸Galerie Louise Michel, 에스파스 멘데스Espace Mandès, 푸아티에)을 개최하다.

도록 『프로젝트 스위트홈 4 Projet Sweet Home 4』(2009, 푸아티에 미술대학 갤러리 Galerie des Ecoles d'art de Poitiers, 갤러리 루이즈미셸Galerie Louise Michel, 에스파스 멘데스Espace Mandès, 푸아티에)를 발간하다.

미하엘 스토버Michael Stoeber가 비평 「예술의 무대가 된 거리 La rue, Schène de l'art」를 발간하다.

단체전 《멀티 스케이프 Multiscape》(2009, 3·15 아트센터3·15 Art Center, 마산)에 참여하다.

Sweet Home 4, 2009
Video, 16:9, single-channel, color, sound
7min 59sec
Poitiers, France



2010년

개인전《디오라마 프로젝션 Diorama projections》(2010, 2P 현대미술 갤러리2P Contemporary Art Gallery, 사이잉펀Sai Ying Pun, 홍콩Hongkong)을 개최하다.

개인전《비디오 비지오넨 Video Visionen》(2010, 미디어아트 에디스-루스-하우스 미디어아트Edith-Russ-Haus für Medienkunst, 올덴부르크Oldenburg, 독일Germany)을 개최하다. 지역 방송국인 올덴부르크 아인스Oldenburg Eins에서 전시에 출품되는 총 작품을 방영하다.

2011년

개인전《스위트 홈 Sweet Home》(2011, 그라프샤프트-벤트하임 예술협회Kunstverein Grafschaft-Bentheim, 노이엔하우젠Neuenhaus, 독일Germany)을 개최하다.

단체전《공공장소 Espace public》(2011, 이미지와 파트리모니 비엔날레Biennale Images et Patrimoine, 님므)에 참여하다.

단체전《땅에서 살기 Habiter la terre》(2011, 제5회 멜르 현대아트 비엔날레5ème Biennale internationale d'art contemporain de Melle, 멜르)에 참여하다.

2012년

단체전《그 사이의 여성: 아시아 여성 예술가 1984-2012 Women In - Between: Asian Women Artistes 1984-2012》(2012/2013,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Fukuoka Asian Art Museum, 오키나와현립미술관Okinawa Prefectural Art Museum, 도치기현립미술관Tochigi Prefectural Art Museum of Fine Arts, 미에현립미술관Mie Prefectural Art Museum, 일본Japan)에 참여하다.



Balade de carola, 2008
Video, 16:9, single-channel, color, sound
9min 37sec

2013년

도치기현립미술관Tochigi Prefectural Museum of Fine Arts 에 〈파리 산책 Balade dans Paris〉(2006)과 〈캐롤라의 여정 Balade de Carola〉(2008)이 소장되다.

개인전《둥지틀기-쪽방 프로젝트 Nestling-Jjockbang Project》(2013, 코너아트 스페이스Corner Art Space, 서울)를 개최하다.

단체전《경계 위를 달리는 Running on the Borders》(2013, 아트스페이스 풀Pool Art Space, 서울) 1부에 참여하다.

2014년

단체전《모바일홈 프로젝트 Mobile Home Project》(2014, 송원아트센터Songwon Art Center, 서울)에 참여하다.

경남도립미술관Gyeongnam Art Museum에 〈스위트 홈 4 Sweet Home 4〉(2009)가 소장되다.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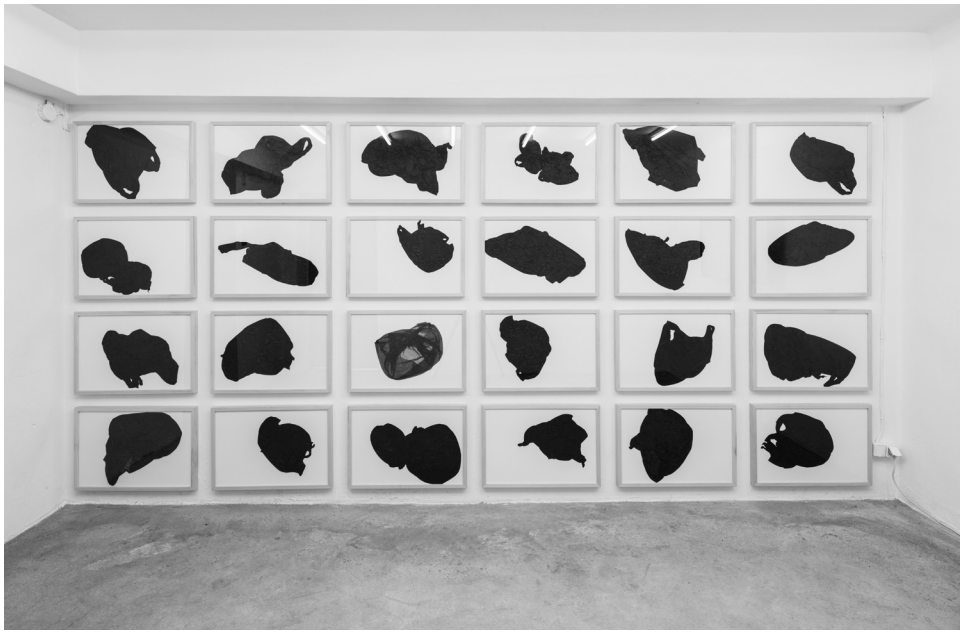
원주토지문화재단 레지던시 Artist Residency, Toji Cultural Fondation, Wonju에서 활동하다.

산문「토지일기 Tojiilgi」(2016)를 작성하다.

단체전《O상O화국 Republic of O sang》(2016, 제11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The 11th Gwangju Biennale Mega-Exhibition, 국립아시아문화전당The National Asia Culture Center, 광주)에 참여하다.

단체전《거주하다 Habiter》(2016, 이미지와 도시의 만남 Rencontre image et ville, 갤러리 넥포스, 님므)에 참여하다.

Return Home, 2019
Installation, plastic bags, frames
210×444cm, 24pcs, each 43×63cm



2018년

10월 파리 남부 이브리쉬르센Ivry sur Seine으로 주거지와 작업실을 이전하다.

단체전《어라운드 솔 르윗 Around Sol Lewitt》(2018, 레세르아트센터Lescer Art Center, 잘레지고르네Zalesie Gorne, 폴란드Poland)에 참여하다.

단체전 《종교와 현대미술의 대화 Dialogs, Art sacré - Art contemporain》(2018, 도네잔Donezan 소재 7곳의 성당, 프랑스France)에 참여하다.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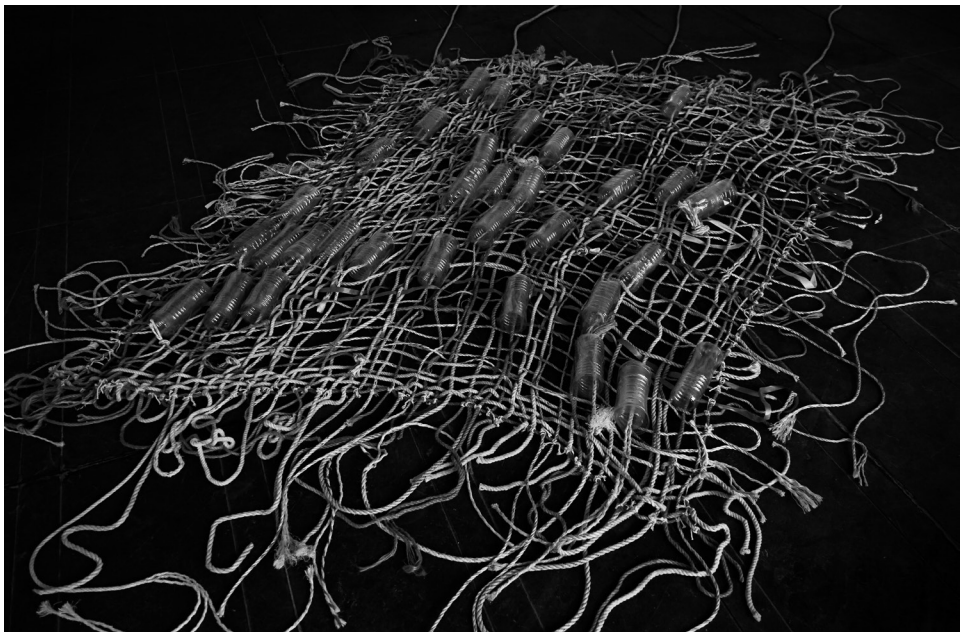
개인전 《집(들) 프로젝트 Home(s) Project》(2019, 레세르아트센터Lescer Art Center, 잘레지고르네; 주폴란드한국문화원Centrum Kultury Korei w Polsce, 바르샤바Warsaw, 폴란드Poland)을 개최하다.

2020년

단체전 《오픈 필드 Champs Libres》(2020, 마이프 소셜클럽MAIF Social Club, 파리)에 참여하다.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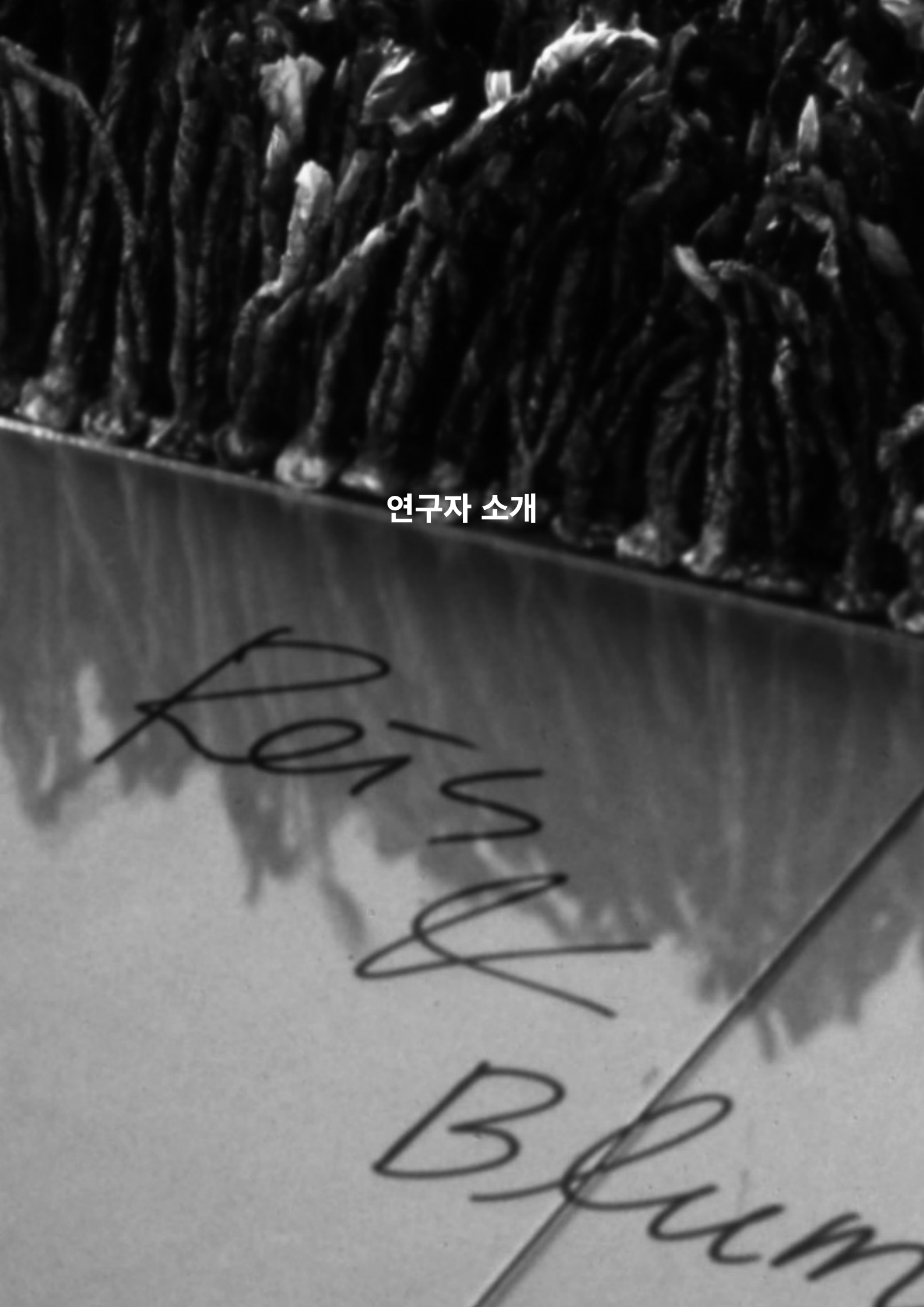
개인전 《집으로 Return Home》(2021, 대안공간 루프Alternative Space LOOP, 서울)를 개최하다.
단체전 《미래 Futurae》(2021, 아트 스트라스부르크 2021 ST-Art 2021,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 프랑스France)에 참여하다.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에 〈나를 불태우다 Je me brûle〉(1986-1987)가 소장되다.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에 〈스위트 홈 4 Sweet Home 4〉(2009)와 〈도착 Arrival〉(2009)이 소장되다.



MAT, BOAT, CARPET – my mat, a boat for family a large carpet for all, 1988/2021
Installation view, plastic bottles, various ropes, installation variable
715×340cm
Return Home, Alt Space LOOP, Seoul, Korea

2022년

개인전 《타인을 찾아서 A La Recherche de L'autre》(2022, 갤러리 우그Galerie Houg, 파리)를 개최하다. 단체전 《심플 액트 오브 리스닝 Simple Acts of Listening》(2022, 웨스트 덴 하그West Den Haag, 헤이그Hague, 네덜란드Netherlands)에 참여하다.



연구자 소개

김종길 (1968 –)

미술평론가 김종길은 국민대 대학원 미술이론학 박사를 수료 했으며, 모란미술관 학예연구사, 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경기문화재단 수석큐레이터,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을 역임하고 현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관장이다. 정관 김복진미술이론상을 수상 (2011)했고, 『포스트 민중미술 샤먼 리얼리즘』(삶창, 2013)을 지었다. 이외에 '제주 4·3미술제' 감독(2014, 2015) 및 'DMZ아트프로젝트-다시, 평화' 예술 감독(2021)을 맡았다.

도미니크 트뤼코 (1956 –)

도미니크 트뤼코는 프랑스 푸아티에시를 기반으로 하는 미술 기획자이다.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많은 국제 규모 전시를 유치했으며, 특히 90년대 르꽁포르 모데른느Le Confort Moderne 전시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제임스 터렐의 'Heavy Water, Earth Shadow, Roden Crater'등 프로젝트 외에 현재 프랑스에서 중견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작가(Fabrice Hyber, Jean-Luc Moulene, Glen Baxter, Claude Leveque 등)를 발굴하는 많은 전시를 유치하였다. 멜르 국제 비엔날레 디렉터로서 2003-2015년까지 활동하였으며 환경 예술을 이끌어 왔다.

미하엘 에얼호프 (1946 – 2021)

미하엘 에얼호프는 독문학 및 사회학 박사를 졸업하고 큐레이터, 저자, 현대미술 및 디자인 이론가로 활동하였다. 독일 Kunstmagazin K 창립자이며 쾰른 국제 디자인 대학의 창립 학장을 역임했다. 큐레이팅으로는 도큐멘타 8, Kurt Schwitters, Robert Filliou 등이 있다.

라이마 스탕그 (1960 –)

라이마 스탕그는 하노버 라이프니츠 대학교에서 독일문헌학, 철학, 저널리즘을 전공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갤러리 Hal(Haus am Lützowplatz) 〈Rechts〉 기획(2018), 예술공간 Kunstverein am Rosa-Luxemburg-Platz 〈2050〉 기획(2019) 등이 있다. 주요 비평으로는 ArtReview 매거진 〈Nic Guagnini: Heads〉 전시 비평, SPIKE 아트매거진 'PORTRAIT CLAIRE FONTAINE' 비평글, 〈Democracy today' (2021)〉 전시 비평 등이 있다.

양지윤 (1977 –)

양지윤은 '대안공간 루프'와 '사운드 아트 코리아'의 디렉터이다. 암스테르담 데아펠 아트 센터에서 큐레이터 과정에 참여한 이후, '코너아트스페이스'의 디렉터이자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수석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2007년부터 바루흐 고틀립과 함께 '사운드이펙트서 울: 서울 국제 사운드아트 페스티벌'을 디렉팅하고 있다. 기존 현대미술의 범주를 확장한 시각문화의 쟁점들을 천착하며, 이를 라디오,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적 소통으로 구현하는 작업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한 기획 전시로 〈레퓨지아(대안공간 루프, TBS 교통방송, 2021)〉, 〈'혁명은 TV에 방송되지 않는다(아르코미술관, 2018)〉, 〈'플라스틱 신화들(국립 아시아문화전당, 2016)〉, 〈그늘진 미래: 한국 비디오 아트 전(부카레스트 현대미술관)〉, 〈Mouth To Mouth To Mouth: Contemporary Art from Korea(베오그라드 현대미술관)〉 등이 있다.



카탈로그 레조네 목차

1 하차연 작가 소개 및 이력
About the Artist: HA CHA YOUN

2 김종길, 빈자리에 올리는 '낮힘' - 아웃사이더 하차연의 '잇닿을' 목소리
Gim JongGil, "Lowering"(nat-chim) Raised in Empty Places

3 미하엘 에얼호프, 현지화로서의 거주
Michael Erlhoff, Sojourn as Situatedness

4 라이마 스탕그, 홈-레스-홈
Raimar Stange, home-less-home

5 도미니크 트뤼코, 오픈 에어
Dominique Truco, The Open Air

6 양지윤, 하차연 작업 해제
Ji Yoon Yang, Commentaries on HA CHA YOUN's Artworks

7 이선미, 하차연, 하차연 작가 인터뷰
Sun Mi Lee, Interview with HA CHA YOUN

8 하차연 작가 연보
Biography

9 글 원문
Texts in Original Languages

10 하차연 작업 목록
Artwork List

홈(즈)

작가	하차연
총괄기획, 책임연구자	양지윤
연구자	이선미
보조 연구자	문아름, 조근란, 조소연
아키비스트	김다영
인턴	고미소, 곽민정, 김우진, 박나영, 박다임, 박새별, 박한별, 신혜원, 안지형, 윤지희, 이소희, 이하영, 주한빈
글	김종길, 도미니크 트뤼코, 라이마 스탕그, 미하엘 에얼호프, 양지윤, 이선미, 하차연
편집	양지윤, 이선미
번역	파스칼 드뤼에, 수잔 디켈, 렉스코드, 문선아, 조지 프레드릭 타키스
교정	조지 프레드릭 타키스
디자인	마바사(안마노, 이수성, 김지섭)
발행처	안그라픽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

© 하차연, 대안공간 루프 All right reserved.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본 도록에 수록된 글과 사진 및 도판은 하차연과 대안공간 루프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LOOP ALT SPACE ARTS COUNCIL KOREA 작가연구조사비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안그라픽스